

어린이집 눈치 안보고 늦게까지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전담교사 채용 인건비 등 지원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합니다.”
이처럼 일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든, 외벌이든 늦게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의 ‘맞출반’과 ‘종일반’이 폐지되고,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나뉘게 된다. 어린이집은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아의 연장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도 없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 교사가 투입된다. 기본보육을 담당하던 교사의 부담은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

간이 확보되면서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여건 개선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를 개편해 내년부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자동출결시스템’도 도입된다.
영유아 가정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스

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일일이 원아들의 하원시간을 기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어린이집의 행정부담도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해진

06:18
18:35

달뜨
달침

21:32
10:35

큰 일교차

대체로 맑고 해안가에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14/27	보성	맑음	12/25
목포	맑음	15/25	순천	맑음	15/27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2/26
나주	맑음	11/27	진도	맑음	14/25
완도	맑음	16/26	전주	맑음	12/27
구례	맑음	13/26	군산	맑음	13/26
강진	맑음	12/27	남원	맑음	12/26
해남	맑음	12/27	흑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1/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5~4.0	북~북동	1.0~3.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북동	2.0~3.0	북~북동	1.5~2.5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06 22:29	04:56 17:26
여수	05:24 17:42	11:49 23:49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16/26	16/24	17/25	17/25	16/26	15/26	16/26

“치매 극복할 수 있어요” 1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열린 ‘2019치매극복의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치매예방체조를 따라 배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회사 망해 못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지급해야”

권익위, 고용부에 법 개정 권고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녔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풍 한반도 접근중...주말 광주·전남 영향권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곧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로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오는 21~23일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남남동쪽 약 630km 해상에서 느리게 북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저기압 순환이 강해져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 대만 인근

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하며 우리나라로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예상 경로는 미지수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규슈나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아니면 한반도에 상륙할 지 등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로와 무관하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 규모와 강도가 커 토요일인 21일 오후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등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일 조선대서 호남권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2020학년도 호남권(광주·전남)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전문대 수시 1차 원서접수 기간이 오는 27일까지라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호남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31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최근 특성화된 전공과 취업에 대한 이점 등으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 135호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 (비R&D)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통합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전남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에너지신산업분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비R&D)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중견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09월 16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비R&D)사업
- 지원기간 : 2019. 11 ~ 2020. 02. 말
- 지원분야 : 에너지신산업 전·후방 기업
- 지원자격

프로그램	지원자격
품질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경쟁력강화	접수일 기준 전라남도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도개인 및 법인기업 및 임주예정** 기업 * 전라남도 국가혁신클러스터 공간적 정의는 빛가람혁신도시(1.37㎢) 및 인근 나주일반산업단지(0.42㎢), 나주혁신산업단지(1.28㎢), 신도일반산업단지(0.23㎢)등 3.30㎢를 지칭 함.

- 기업부담금 : 총지원금의 10%이상 기업 현금 및 부가기치세 부담
- 세부지원내용
 - 품질경쟁력 강화 : 348,000천원 내외

희망지원분야	지원내역	지원규모
시제품제작	- 전력/에너지 관련 핵심 제품 개발 및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제품제작 등	최대50백만원 6개사 내외
인증	- 제품의 핵심소재,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사전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비용 -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성능검사 수수료 지원 ※ 인증서 발급은 지원기간 내 완료되어야 함.	최대 8백만원6개사 내외

- 마케팅경쟁력강화 : 120,000천원 내외

희망지원분야	지원내역	지원한도
마케팅	- 홍보물, 전라수립, 바이어 매칭 통번역 지원 등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	최대15백만원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	최대 20백만원
현지 시장조사	- 현지 시장, 해외 소비자, 사업파트너 연결 등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지원	최대 8백만원

- Pre-Production (사전기획) : 40,000천원 내외

주요 내용	지원규모
- 개도국의 에너지산업화 협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사전기획 - (신설) 지역혁신클러스터 Phase-II 대비 에너지 신산업 분야 R&D사업 사전 기획	과제별 20백만원 * 2EA 내외

2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홈페이지 사업공고

⇒

현장/실태조사*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발표평가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

⇒

통보 및 협약 체결

신청기업 ↔ 전남 TP

-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공고기간 : 2019. 9. 16 ~ 10. 07 (3주간)
- 접수기한 : 2019. 10.0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58324)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3층, 전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

3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윤정	337-5041~43	heavyn@jntp.or.kr